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김병현

전화 031-475-4002 / 팩스 031-481-4555

## 보 도 자 료

2016. 8. 3.(수)

자료문의 : 형사3부장실

전화번호 : 031-475-4035

주책임자 : 형사3부장 김영익

### 제 목

**역대 최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범죄단체로 구속 기소  
- 78명 적발, 44명 구속 기소 -**

- 수원지방법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3,000여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54억원을 편취한 역대 최대규모의 보이스피싱 조직을 적발하여 총책 A○등 78명을 입건하고, 그 중 44명을 범죄단체조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음
  -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원 내국인으로 구성되고 조직원수가 약 110명에 이르는 대규모 기업형 조직으로, 피해자수(3,000여명), 피해규모(54억원), 콜센터 수(11개), 기소 및 구속인원 수 등에 있어서 그 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조직 중 최대 규모임
-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차 콜센터 조직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을 유인하여 알아낸 개인정보를 2차 콜센터 조직으로 넘기고, 2차 콜센터에서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피해자 1인당 100~300만원을 편취하였음
  - 피해자들 대부분은 형편이 어려워 편취당한 돈을 조직에서 권유하는 대로 대부업체로부터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조달하였음
    - ※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타겟으로 하여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
  - 조직원들 상당수는 20~30대 청년들로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던 중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월 1,000만원 안팎의 수익을 올리며 범행을 계속해온 것으로 밝혀졌음

- 안산지청은 지난 1월 관내 경찰서로부터 총책 A○ 등 11명의 보이스피싱 사기 구속사건(범행기간 1개월, 피해자 289명, 피해액 2억 8650만원) 등을 송치 받은 이후, 6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하였음
  -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주기적으로 콜센터를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신분을 숨긴 채 범행을 하여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더라도 범행 전모의 규명이 어려운 특성이 있음
  - 이에 안산지청은 이번 수사에서 범행 전모를 밝히기 위해 치밀한 수사 계획을 수립하여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분석, 조직원 주거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공범 70여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 하였음
  - 또한 관련자들을 200회 이상 소환 조사하고, 대포통장 의심계좌 1,000여개의 거래내역(분석대상 거래 총 58만 4,406건)을 전수 분석한 다음 피해자 수백명을 전화 조사하였음
  - 그 결과,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1년 3개월 동안 피해자 총 3,079명을 상대로 합계 54억 7,373만원을 편취한 대규모 기업형 범죄단체임을 규명하여 78명의 조직원을 사기죄 등으로 입건하고 그 중 44명을 구속하였음
- 안산지청은 주요 가담자 56명을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으로 입건하고, 피해금품 은닉 행위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의율하였으며, 조직원이 얻은 범죄수익은 현재 압수된 약 1억 1,300만원 외에도 향후 추징보전 조치와 은닉 재산 추적 등을 통해 철저히 환수할 예정임
  - 본건은 총책 등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기소한 최초 사례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자들을 조직범죄로 엄벌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진화와 서민피해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임

**I****피고인**

- **총책 · 자금관리책** : AO(남, 44세), BOO(여, 32세)
    - 경찰 구속 송치(2억 8,650만원대 사기)
    - 검찰에서 51억대 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죄 등 추가 인지하여 기소
  - **1차 콜센터 총 관리자** : COO(남, 44세) 등 2명
    - 2명 모두 검찰 인지
    - 1명은 검사 직구속, 1명은 별건 구속
  - **2차 콜센터 총 관리자** : DOO(남, 29세) 등 2명
    - 1명은 검사 직구속, 1명은 별건 구속
  - **대포통장 공급책** : EOO(남, 37세)
    - 검찰 인지, 별건으로 구속되어 불구속 기소
  - **팀장급 간부** : FOO(남, 34세) 등 총 9명
    - 검찰 인지·직구속 1명, 경찰 구속 송치 8명(2억 8,650만원대 사기)
    - 검찰에서 51억대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 추가 인지하여 기소
  - **2차 콜센터 상담원** : GOO(남, 29세) 등 총 44명
    - 검찰 인지 24명, 경찰 송치 20명
    - 위 44명 중 40명 검사 직구속, 1명은 경찰 구속(총 41명 구속)
  - **1차 콜센터 경리 및 상담원** : HOO(여, 25세) 등 총 16명
    - 검찰 인지 14명, 경찰 불구속 송치 2명
    - 1명 검사 직구속, 나머지는 불구속 기소
  - **현금인출책** : IOO(남, 29세) 등 총 2명
    - 2명 모두 검찰 인지
    - 모두 불구속 기소
- ※ 그 외 인적사항이 확인된 30여명의 소재를 추적 중임

## II

## 범죄사실 요지

### 1. 보이스포싱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 총책 A○는 대부중개업체를 운영하던 중 당국의 규제 강화로 영업이익이 줄어들자 2013.말경 같은 대부업체 직원인 B○○, C○○ 등과 짜고 보이스포싱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53명의 조직원들은 2013.말 ~ 2015. 10. 위 보이스포싱 범죄단체에 가입·활동
  - 본건 보이스포싱 조직의 구성 및 활동형태를 보면,
    - 본부는 콜센터 등을 총괄 지휘하고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
    - 1차 콜센터(팀장, 상담원 등 15명)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확보하여 전화로 대출의사 및 개인정보를 파악 후 2차 콜센터로 넘기는 역할을 수행
    - 2차 콜센터(팀장, 상담원 등 7~10명)는 1차 콜센터에서 넘겨받은 피해자들의 리스트를 이용하여 전화로 “신용관리비용을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수행
    - 그 외 현금인출팀, 대포통장 공급팀 등을 운영
- ※ 총책 A○ 등은 2013.말경 1차 콜센터와 2차 콜센터 각 1곳을 개설하여 범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죄수익이 늘어나자 대부중개업체 상담원과 지인들로 조직원들을 확충하여 2015. 5.경에는 1차 콜센터 3곳, 2차 콜센터 8곳 등 조직원 100여명 이상의 대규모 조직으로 확대운영

### 2. 사기 및 범죄단체활동

- 2014. 9. ~ 2015. 12.경 3,078명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신용관리비용을 송금하면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고액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신용관리비용 명목으로 합계 54억 7,373만원을 편취

###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총책 AO 등 위 보이스포싱 조직원들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54억 7,373만원을 편취하면서 이를 유령회사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을 가장

### Ⅲ

## 수사 경과

### 1. 경찰 수사

- '16. 1.경 안산단원서에서 총책 A○ 등 11명의 조직원들을 검거
- '16. 1. 28. ~ '16. 3. 9. : 안산단원경찰서 및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총 5회에 걸쳐 본건 조직원 34명 사기죄로 송치 및 이송(구속 11명, 불구속 23명)
- 송치 범죄사실은 '15. 9. 16. ~ 10. 22. 사이에 28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2억 8,65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임

### 2. 검찰 수사

- 대포통장 의심계좌 1,000여개를 계좌추적하고(분석대상 거래는 총 58만 4,406건), 대포통장에 금원을 송금한 피해자 수백명의 진술을 청취하여,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에 사용한 대포통장 150여개를 확인  
→ 이를 통해 범행기간 약 13개월, 피해자 3,078명, 편취금액 약 54억 7,373만원 등 범행 전모를 밝혀냄
- 검찰은 중국 도피 중인 2차 콜센터 총 관리자 DOO의 자진 귀국을 유도하여 구속하고, 1차 콜센터 총 관리자 COO를 검거, 구속하는 등 핵심간부들의 신병 확보
- 이후 조직원 다수를 설득하여 수사에 협조하게 하고,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 통화내역 확인, 조직원 주거 압수·수색, 관련자들을 200회 이상 소환조사 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로 가담자 70여명 추가 확인
- '16. 7. 중순 조직원 42명을 동시에 구속한 후 조직원 분리조사 등을 통해 범죄조직 운영체계 및 범죄수익 분배구조를 명백히 밝혀 '16. 7. 29. 78명을 기소하였고, 30여명을 추가 수사 중에 있음

## IV

## 수사 의의

### 1.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대부분 검거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조직원수가 110여명에 이르는 것 외에, 피해자수(3,000여명), 피해규모(54억원), 조직원 수(120여명), 콜센터 수(11개), 기소된 조직원, 구속 인원 등에 있어서 국내 보이스 피싱 조직 중 역대 최대 규모임
- 보이스피싱 조직의 특성상 조직원 일부가 검거되어도 다른 조직원들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본건의 경우 과학수사기법 활용과 조직범죄 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78명을 기소하고, 그 중 44명을 구속 기소한 것임
- 그 동안 보이스피싱 수사에서는 전체 피해규모를 밝히기 어려워 전체범죄 중 극히 일부만 기소되고 죄책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대포통장 의심계좌 1,000여개를 계좌추적하고, 피해자 수백명을 전화 조사하는 등 피해사실을 규명하는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여 3,000여명의 피해자들을 밝혀냈음

### 2.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범죄단체조직 또는 가입·활동죄 등으로 의율

- 수사 결과, ①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원들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②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수직적 위계질서 하에 엄격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며, ③10여개의 콜센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추고 2년 이상 범행을 지속해 온 사실을 확인하여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로 기소하였음
- 폭력조직 등 다른 범죄단체의 경우 조직의 결집력을 유지하기 위해 가입·탈퇴 시 폭행·협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반면,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경제적 이익 추구를 기반으로 폭행·협박 이상으로 강력한 통솔체계를 유지하며 활동해 왔음
  - 본건 조직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위주로 조직원들을 선발한 후 실적에 따라 월 최대 1,300만원이상의 돈을 지급함으로써 조직의 결속력을 유지하였음

**V****향후 계획**

- 안산지청은 이미 기소한 78명 외에도, 나머지 가담자들을 계속하여 추적 수사하고, 대검찰청의 보이스피싱 범죄 엄단 지침에 따라 관련자 엄정 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